

'현우경' 이야기 (35)

아라한이 된 500명의 상인

바다 신에게 물 한 모금을 공양하니...

어느 나라에 500명의 상인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상인들은 모두 모여 중요한 회의를 열었다.

"혹시 다들 그 얘기 들었소?" "무슨 얘기 말이요?"

"동쪽 바다에 작은 섬이 있는데, 그 곳에 아주 진귀한 보물이 가득 묻혀있다 하오." "그 말이 사실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확인해 봤소. 우리가 그 보물을 캔다면 모두 부자가 될 것이오"

상인들은 의논 끝에 모두 바다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며칠이 지나 그들은 출항준비를 마치고 동쪽 바다로 향했다. 출항한지 일주일쯤 지나 그들은 동쪽 바다 북편에 이르러 갔다. 그때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검어지고, 파도가 심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상인들은 몹시 당황해 우왕좌왕 했다.

"아니 갑자기 날씨가 왜 이리 험하게 변한단 말인가?"

그때 멀리서 몸집이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머리에 뿔이 달린 바다괴물이 상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바다괴물은 배에 다다라 상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무서워 절대 이 바다를 지나지 못할 것이다."

한 상인이 나서 괴물에게 말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무서운 것이 얼마든지 많소.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전혀 두렵지 않소."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체 무엇인가?"

"나쁜 죄를 지으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만 가지의 고통을 받는다 하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들다 들었소. 몸이 찢기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며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수천만 년을 지낸다고 하오. 나는 당신보다 이런 사실이 더 무섭소."

이 말을 들은 바다괴물은 상인들의 배를 놓아주고 형체를 숨겼다. 그렇게 시간이 며칠이 흘러 배가 다시 몇 리를 지났을 때 상인들은 바짝 말라 죽어가는 한 사람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인들은



삽화 · 강병호

그 사람을 바다에서 건지고 치료해 줬다. 그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상인들이 물었다.

"어찌다 바다에 빠져 이토록 마른 것인가?"

"나보다 더 마른 이를 본적이 있소?"

그때 또 한 상인이 대답했다.

"당신보다 더 여윌 것이 있소. 세상에 태어나 남의 것을 탐하고 질투하고 보시할 줄 모르면, 훗날 지옥에 떨어져 몸은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아 수천 년 동안 음식 먹을 수 없다고 들었소. 그래서 형상

이 당신보다 더 여윌 것이지요."

이 말을 듣자, 물에 빠졌던 사람은 배 안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상인들은 다시 배를 몰고 길을 떠났다. 몇 리를 지나자 아름다운 인어가 배를 가로막았다. 상인들은 인어의 아름다운 모습에 모두 반했다. 인어가 물었다.

"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있소나?"

그때 한 상인이 나서 말했다.

"그대보다 아름다운 것이 많소. 항상 남을 공격하고 지혜롭게 살면 훗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들었소. 당신은 그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외모를 갖고 있소."

그때 갑자기 인어는 바다의 신으로 변해 본래 모습을 드러내 물었다.

"내가 지금 한 모금의 물을 마실 것이다. 이 한 모금의 물이 많은가? 바닷물이 더 많은가?"

"한 모금 물이 많습니다."

"어째서 바닷물보다 이 한모금 물이 더 많은 말인가?"

"만일 세상에 태양이 여러 개가 된다면 모든 물은 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한 모금의 물을 누군가에게 공양한다면 그 마음은 억 겁의 세월이 흘러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신이 상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나?"

"저희들은 보석을 구하기 위해 섬으로 향하던 길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바다를 건너왔지만 섬이 보이지 않아 해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다신은 갑자기 바닷물을 일으켜 배를 순식간에 섬 앞에 다다르게 했다.

"지혜로운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히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 좋은 곳마다 이 보석을 쓰도록 해라."

상인들은 모두 기뻐하며 바다의신에게 감사해 했다. 상인들은 보석을 자신의 나라로 가지고 돌아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신했다. 그러자 모두 욕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열려 그 자리에서 출가해 훗날 아라한이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37 - 초발심의 중요함 - 구성-김홍인

발심(發心)하여 보살도를 행하는 이가 비록 성취를 보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의미심장함을 비유한다면 저 '가라빈가'라는 새가 아직은 알 속에 있지만 일단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흥분함이 어느 새와도 비할 바 없는 것과 같다.

옛날에 여섯가지 신통을 갖춘 아라한이 제자인 사미에게 짐을 지우게 하고 길을 걷고 있었다.

도중에 사미가 생각을 하는데... 어서 빨리 성불하여 열반에 들어가자!

짚은 내가 질테니 앞장 서거라!

이어 사미는 다른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아무나 되나? 한량없는 괴로움을 이겨야 하는데...

스승은 다시 짐을 내어주고 뒤따라오게 했다. 다시 짚어 지고 따라와!

사미는 다시 대승적인 생각을 하였고... 부처님이 길을 보여주셨는데 자포자기하는 못난 생각을 하다니...!

스승은 사미를 다시 앞장세웠다. 앞장서 가지시요~ 왜 그러시지?

사미의 생각에 따라 상황이 반복되는데... 따라와! 입마

화가난 사미가 따져물었다 스승님! 왜 자꾸 장난을 치시는 겁니까?

너는 처음에 부처님이 되겠다고 발원을 했다! 그 마음은 소중하기 그지없어 가히 내 스승의 자리라고 할만하여 앞길을 내주었다!

그런데 잠시 후 너는 후회하며 소승(小乘)을 취하려 했고 그 경계마저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와 나는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다! 스승의 말에 깨달음을 얻은 사미는 대승(大乘)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20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20권 출간! 설봉선사, 암두선사, 고정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에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민속죽염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할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